

# 이재명, ‘민주의 심장’ 호남서 득표율 90% 돌파할까

김대중 97.28%·노무현 95.17%...광주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  
이재명 지난 대선서 광주 85%·전남 86%·전북 83%에 그쳐 낙선  
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 ‘90% 득표 목표’...투표율 높이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호남이 다시 한번 정치적 선택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 광주·전남도 선거대책위원회는 달성 목표를 ‘90% 압도적 지지’로 설정했고, 광주 지자체 단체장들도 ‘역대 최대 투표율’을 목표하고 있어 민주당의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90%를 넘는 투표율과 득표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호남은 이전 대선마다 민주당계 정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광주 97.28%, 전남 94.61%, 전북 92.28%라는 경이로운 득표율 역사를 쓰며 첫 호남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역시 광주에서 95.17%, 전남에서 93.38%, 전북에서 91.5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광주·전남·전북 득표율은 각각 84.82%, 86.10%, 82.98%로 19대 대선을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받은 가장 낮은 수치였다. 19대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진보 진영의 표를 나눠 가진 선거였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호남 득표율은 전국 단위로 보면 압도적인 수치였지만 김대중·노무현 당시 후보와 비교했을 때 ‘호남 결집’의 절대치는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호남 지역민들이 대선마다 민심을 다시 한번 결집해 ‘홍대론’·‘소외론’까지 등장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재조명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대선에서는 ‘그때 그 시절’을 뛰어넘는 호남 민심의 재결집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 광주·전남·전북 대선 민주당 후보 득표율

	광주	전남	전북
15대 김대중	97.28% (75만4159표)	94.61% (123만1726표)	92.28% (107만8957표)
16대 노무현	95.17% (71만5182표)	93.38% (107만506표)	91.58% (96만6053표)
19대 문재인	61.14% (58만3847표)	59.87% (73만7921표)	64.84% (77만8747표)
20대 이재명	84.82% (83만58표)	86.1% (109만4872표)	82.98% (101만6863표)

지역 당직자들은 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광주·전남 민주당 선대위는 90% 지지를 달성 목표로 내세웠다. 또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 등은 ‘역대 최고 투표율인 92.5%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선거법상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제한된 단체장들은 득표율 목표치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마다 호남에서 얼마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느냐가 전체 당선의 운곽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뒷발 다지기에 공들이고 있다. 대선에서 호남 민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집권 하더라도 지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에서 90%대 투표율과 득표율이 동반될 경우, 수도권 승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 단위로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호남의 ‘민주당 몰표’는 민주당 후보에게 있어 절대적인 안정판이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호남의 표심이 얼마나 강하게 한곳에 모이느냐에 따라 전체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자기 정권은 윤석열 탄핵 이후 생기는 정권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고 그 지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호남의 선택”이라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명령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거 운동원들이 유권자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 유권자 모두를 만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주시민 모두를 만나 읍소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단=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펫심 잡기’ 경쟁 후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학대와 유기물을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

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 동물 입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펫 공원·펫 카페 조성, 펫 위탁소 운영 확대,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도 약속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민주협 기념식서 상도동·동교동계 원로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계 원로들의 모임에 참석,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윤여운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선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결성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옛 상도동·동교동계 인사들과 만났다.

민주협은 19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윤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겨울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극우세력의 공격이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

는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불법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아우고,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회를 적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진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군사독재를 넘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으로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도동계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동교동계의 권오갑 민주협 이사장, 정균환 민주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 행보에 맞춰 외부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문병호 전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 출신 원의 인사

4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야말로 옛날 국민의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에 기반한 중도 실용 정책,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도 동시에 지지층 결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정부계승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과 함께 제 역량을 다 바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정권교체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야 할 4기 민주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